

형제들을 떠나왔어도 유다의 삶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더욱 피폐해져만 갔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 세 아들을 낳았지만 장남, 차남이 죽었다. 죄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잘 알고 있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과 맺어줄 수 없었다. 아들들의 됄됨이를 유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 창세기 38:11**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후 유다에게 또다른 불행이 있었다. 아내가 죽은 것이다. 두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친정에 보냈다. 아내 마저 죽었으니 사실상 가정이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산산히 부서진 유다의 가정이었다. 붕괴된 것은 유다의 가정만이 아니었다. 유다 자신의 윤리도, 경건도 무너져버린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떼가 방목되고 있는 딘나로 올라간다. 아둘람 사람 히라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을 때부터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 딘나로 올라간 유다는 그곳에서 창기를 만난다. 마침 가진 돈이 없었던 유다는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매춘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때는 아내의 장례를 마친지 얼마 안되는 때다.

유다는 창기에게 맡긴 물건을 되찾아야 했다. 맡긴 물건 중에는 유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도 있었다.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고 자기 물건을 대신 찾아달라 부탁한다. 두 사람이 참 친하긴 친했으나보다. 히라는 염소 새끼와 함께 빈 손으로 돌아왔다. 그 동네에는 창기가 없단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 창세기 38:24**

유다가 만난 창기는 며느리 다말이었다. 다말은 자신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 유다를 신뢰할 수 없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자식을 낳아야 부정한 여인, 버려진 여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삼 개월 후 친정에 있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한다. 당시의 관례대로 부정한 며느리를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며느리가 내놓은 자신의 물건을 본 유다는 다말을 풀어준다.

형제들을 향한 염증,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유다가 떠난 것은 형제들만이 아니었다. 장자 역할을 해야 하는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떠났다.

유다에게 야곱은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여러 아내를 두어 복잡한 형제 관계가 된 것도,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을 편애하는 것도, 베엘로 가지 않고 세겔에 있다가 디나가 불행을 당한 것도, 그로 인해 칼부림이 일어난 것도, 모두가 야곱에 결정에 의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집을 떠난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야곱의 입장이 된다.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의 의무를 버렸듯이 유다의 아들들도 형제의 의무를 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다말의 출생도 야곱을 생각나게 했다.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출산할 때 세라의 손이 먼저 나오자 붉은 실을 묶었지만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다. 쌍둥이가 태어난 것과 결과적으로 둘째가 먼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도 쌍둥이였고 둘째였으나 결과적으로 장자가 되었었다.

유다에 관한 기록은 앞으로 등장하는 요셉과 비교되기도 한다. 아내의 장례 직후 창기를 만나는 유다의 행동은 별거벗은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요셉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 *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는 유다지파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가 되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된다.
- *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다